



이렇게 재밋어도 돼?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그건 옛말이지요.

이제는 즐긴다, 우리의 권리

1월 28일 오전 8시 30분, 두 번째 파업지침이 떨어졌다. 상사병이라도 걸렸던 것일까, 첫사랑같은 파업의 진한 여운은 조합원들을 더욱 발 빠르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파업지침이 떨어지자 경기썬들은 가장 먼저 센터를 방문했다. 커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아직 조직되지 않은 엔지니어들과 고객들에게 ‘우리 파업 중’임을 알렸다.

오전 11시 30분, 엔지니어들이 “입사할 때 6개월간 교육 받았다”는 수원GCA 앞에서 기습집회를 열었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쌍용차지부 등 연대단위들이 함께 했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은 이제 다 옛말! 삼성이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뀐다! 우리가 바꾸자!”는 박성주 부지회장의 말로 시작한 기습집회는 끝날 때까지 그 기세가 높아만 갔다. 이렇게 재밋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합원들은 이제 우리의 권리인 파업을 즐기게 되었다. 점심으로 먹은 주먹밥은 약간 부족했어도, 권리를 즐기려는 마음은 단단했기에.



든다! 떠! 라이징 ★ 스타

투쟁을 이어가면 갈수록, 눈에 띄는 조합원들이 많기도 하다. 배태랑 민중가수 ‘박준’동지마저 놀라게 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혁명의 투혼’과 ‘열사가 전사에게’를 강렬한 락발라드로 선사한 평택센터의 이주용조합원이 바로 오늘의 라이징★스타다. 끼있는 조합원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라이징★스타’가 뜨는 만큼, 파업에 대한 우리 자신감도 뜬다! 떠!

파업의 춤바람, 전세계로 앓싸!



처음에는 쭈뼛쭈뼛했지만, 이내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삼바삼바삼바삼바~ 삼성을 바꿔야해. 삼바삼바삼바삼바~ 우리 삶을 바꿔야해” 노래에 맞춰 모두가 흔들흔들, 찌르고 찌르고! 경기썬 춤바람 났네!

전국의 썬이 출 때까지! 전국의 소비자들이 골반을 돌릴 때까지! 전세계의 삼성노동자들이 함께 흔들 때까지! 강남스타일이 따로 있나, 우리가 만든 썬스타일 전세계로 수출하자! 무리라고? 삼성을 바꾸려면 이정도 해야지. 노래하고 춤추며 우리가 바꾸자! 삼바!

양동작전(陽動作戰), 성공!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수원GCA 앞에서 기습집회를 여는 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소비자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안산센터에 방문한 안산지역 노동자들에게 한 내근 엔지니어는 “화이팅!”이라며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동수원센터의 직원들은 손과 몸은 제품에 있지만, 마음은 우리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다는 듯 연신 우리에게 눈빛을 보냈다.

사측관계자들은 신신당부 한다. “센터는 좀 안 들어가면 안되냐”고. 그래도 우린 할 거거든? 그게 우리 스타일이거든! 경기썬 스타일!

오늘 진행한 양동작전은 앞으로 진화를 거쳐 무궁무진하게 전개될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과 소비자의 공동행동을 결합해서, 삼성과 박근혜정권이 좋아하는 “창조프레임”에 따라 우리 또한 “창조적투쟁”을 변화무쌍하게 구사할 것이다.



-1, 하나로 가는 인천

28일 경인권 파업에 참가한 인천동지들은 딱 한명의 조합원을 빼고 전원이 파업에 참가했다. 파업직후 금속노조인 천지부에 모인 조합원들은 1시간 동안 파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인천동지들도 첫 사랑같은 파업을 하고 배워가는 중이다. 12시부터 부천센터에서 집회와 점심식사를 마친 동지들은 1시30분부터 4시까지 내근센터방문투쟁을 벌였다. 그런데 부천센터는 출입자체를 막는 회사관리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직장에서 하는 파업은 정당하다. 설혹 직장이라도 수리하러 들른 고객을 왜 막는 것인가. 경찰이 출동했지만 막을 이유가 없었다. 결국 모두 들어갔다. 5시에 조합원들 인천 터미널 주변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6시부터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촛불문화제를 가졌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주관으로 민주노총과 연대단체들이 함께 했다. 한 조합원의 부인이 편지를 낭독할 때 그 곁에 선 조합원이 자녀와 손을 잡고 그 깊은 마음을 전달받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늘 듣던 유행가 '무조건'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시간은 모두에게 그야말로 '짱'이었다. 생애 첫 파업을 경험한 부천센터의 한 신참 조합원은 "노조를 꿈도 꾸지 못했다. 파업도 꿈꾸지 못했다. 그러나 처음 해보면서 자신감이 팍팍 솟는다고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권리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고 있다. 아자, 가자, 파이팅!



경총은 스파이?

28일 오후 2시 성남센터에서 교섭이 열렸다. 파업인데도 사측은 교섭에 응했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역시 팽. 사측은 "교섭국면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경기남부가 파업을 해서 당혹스럽다"고 했다. 대체 뭐가 당혹스러울까. 노조는 "교섭국면이라고요? 그게 선언하면 되는가요. 교섭국면이라는 걸 느끼게 할 뉘 근거가 있냐. 임금과 복지안 혹은 노조활동보장에 대한 어떤 진척도 없고 그렇다고 전국교섭을 묶어서 하겠다는 무슨 변화를 느낄 수도 없다. 말로만 교섭국면선언하면 누가 믿냐"고 했다. 여전히 경총은 "임금안 준비 중이다. 기본급은 있다. 사장들과 두 차례 협의를 했다. 사장들이 매출과 임금총액을 비교하면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이 얘기 대체 몇 달 동안 해온 지겨운 레퍼토리인가.

경총은 스파이 아닐까.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오직 딱 하나의 임무, 시간끌기라는 임무만 받은 스파이가 아니라면 대체 왜 이러겠는가? 노조교섭단은 "이런 꼴

이라면 우리는 알아서 간다."고 했다. 경총은 "남부지역이 너무 앞서가는데 오늘 부산경남쪽에 밤새워서라도 교섭을 하라고 교섭단을 파견했다. 남부쪽을 최대한 설득해서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했다. 정말 그런지 이 소식지 뿌러지기 전에 벌써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경총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들이 아무 쓸데없는 시간끌기용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첩인지 아니면 진짜 뉘 내용이 있는 사측교섭대표인지 다음 주에는 판단의 칼을 내리쳐야 한다. 간첩이라면 경총 제거고 가야 한다. 정말 진전된 안을 내고 말로만 교섭국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 교섭해도 되겠네'라고 느끼게 하는 뉘가 그럴싸한 조치가 있어야 그뉘 우리도 교섭을 교섭이라 생각해 볼 것이다. 아니라면 이 쓸모없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핫바지들과 시간 낭비 그만 하고 삼성전자와 맞짱 뜯 준비하면 그만이다. **경총, 이제까. 당신들 실제!**